

# 스미싱·파밍 느는데 대책은 “알아서 조심”

### 광주·전남 올 1300여건에 피해액 7억원 넘어

#.A씨는 친구에게 4만원을 보내려고 자신의 컴퓨터로 은행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갑자기 화면이 꺼져 재접속했다. A씨는 얼마 뒤 “받지 못했다”는 친구 연락을 받고 서서 다른 은행 계좌로 199만원이 송금된 사실을 확인, 지난달 13일 광주동부경찰청에 신고했다.

#.B씨는 “토요일 결혼식 잊지 말고 축복해주세요요”라는 내용을 담은 ‘웨딩 사진첩’이라는 메시지를 보고 클릭했다가 자기도 모르는 새 29만 5710원이 결제된 사실을 알게 됐다. 참석해야할 결혼식이 있는데, ‘웨딩 사진첩’이라고 해 무심코 눌렀다가 뒤늦게 ‘스미싱’으로 불리는 금융 사기를 당했다고 판단, 광주광산경찰청에 8월 신고했다.

파밍(pharming), 스미싱(smishing) 등 갈수록 진화하는 금융 사기에 당국의 대응이 따라가지 못하고 피해 구제 받기도 쉽지 않아 적극적 예방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3000만원)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 핵심 피의자 검거나 피해 구제 면이 꺼져 재접속했다. 스미싱이나 파밍 사건의 경우 대부분 해외에서 결제가 이뤄져 추적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다, 설정 IP주소 등을 알아내도 해외에 있는 범인 검거가 쉽지 않아 인출책 등 ‘꼬리만 잡는 게 고작이다.

광주청의 경우 올 들어 발생한 파밍 사건 중 36건에 대해 ‘대포통장’을 빌려준 혐의를 적용, 처벌했을 뿐이며 전남청도 57건의 파밍 사건 중 5건(6명)만 검거했을 뿐이다.

피해자들이 잇따르고 있는데도, 개인 책임이라는 이유로 금융권에서 피해 구제를 받기도 쉽지 않다. 그나마 스미싱은 경찰서에서 ‘피해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통신사 등에 제출하면 배상 받을 수 있는 반면, 파밍 사건은 금융 기관들이 개인 과실이라는 이유로 적극적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대부분의 피해자가 범인에게 스스로 개인정보를 알려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인식되면서 개별적으로 소송을 통해 은행의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할 사안이 적지 않은데다, 소송까지 가더라도 은행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극히 미미한 형편이다.

또 금융 당국이 최근 300만원 이상 금융 거래시 본인 인증 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를 시행하는 등 예방 조치를 마련, 시행중이지만 피해 보상 대책은 빠져 있어 현재로는 개인 스스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 외에 뾰족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관련 의견은 “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현 부처가 나서 적극적 예방 활동 및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4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9월 말까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웹사이트를 클릭하면 일정 금액이 소액 결제로 빠져나가는 스미싱은 907건(피해액 1억원)이 발생했다. 또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심어놓고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빼내는 ‘파밍’도 올 들어 9월 말까지 55건이 발생해 3억 1000만원의 피해액을 기록했다.

전남청도 올 들어 발생한 351건의 스미싱 사건으로 인한 피해액이 5300 만원에 이르고 같은 기간 57건의 파밍 사건도 발생해 피해자들이 3억 5760만원을 페인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 뿐 아니다. 김현 민주당 의원이 최근 내놓은 경찰청의 ‘스미싱 범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2182 건(5억6900만원)에 불과했던 스미싱 범죄는 올 7월까지 1만8143건(35억



**따뜻한 밥상 나누기** 광주시 북구청 공무원 등 115명이 14일 광주시 북구 우산근린공원에서 공원을 찾은 어르신 500명에게 무료로 점심식사를 나눠 주고 있다. 이날 ‘따뜻한 밥상 나눔 행사’는 북구청·북구대한적십자사·삼성전자 주최로 열렸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광주전산센터 ‘성접대 리스트’ 확보

### 경찰 입찰비리 수사... 용역 파낸 업체 압수수색

### 공무원·심사위원 20여명에 70여차례 접대 확인

안정행정부 소속의 광주정부통합 전산센터 입찰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센터 공무원들이 업체로 부터 사습적으로 성접대를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광주지역 한 유흥업소를 압수수색, 광주전산센터가 발주한 각종 전산 용역에 파낸 D사 직원들과 입찰 심사위원들을 접대한 내역이 담긴 장부들을 확보했다.

장부에 오른 접대 대상자들은 20여 명으로, D사는 70여차례에 걸쳐 이 업소에서 이들을 접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업소에서 술을 마시고 이른바 ‘2차’로 생애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D사가 평소 용역 입찰과 관련된 센터 공무원 등을 상시 관리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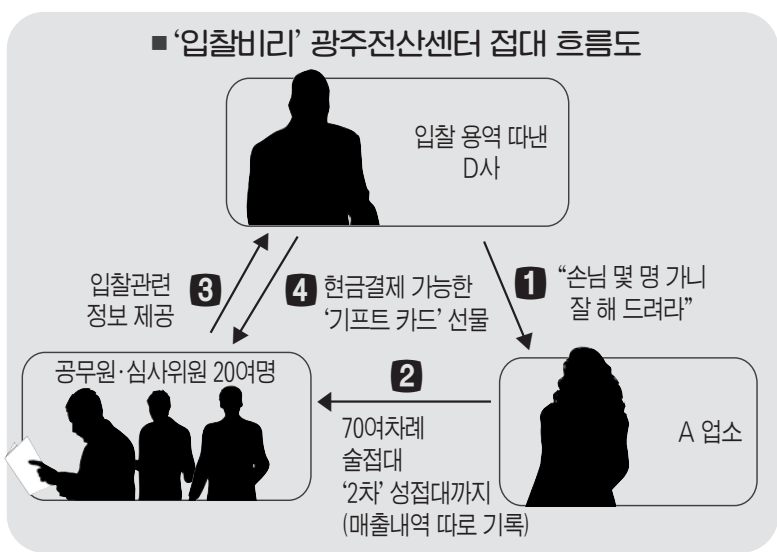
려고 이 업소를 지정, 지속적으로 접대에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업소는 D사 측으로부터 ‘손님 몇 명 가니 잘해 드리라’는 식의 연락을 받으면 D사와 관련된 매출 내역을 따로 기록해 둔 것으로 드러났다.

D사는 또 센터 공무원들에게 일정액의 현금을 결제할 수 있는 ‘기프트 카드’를 제공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D사가 평소 이 같은 방식으로 공무원들을 관리하고 그 대가로 입찰 관련 정보를 건네받는 등 사업상 편의를 얻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지난달 11일 광주·대전 정부통합전산센터를 비롯해 D사의 광주 본사 및 대전법인, D사 대표 문모씨 자택 등 11곳을 압수수색해 입찰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



디스크 등 증거물을 확보했다. 경찰은 D사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접대 대상으로 의심되는 공무원과 심사위원 등도 차례로 불러 접대를 받았는지, 그 대가로 입찰에 편의를 제공했는지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접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공무원 등은 뇌물수수 혐

의로 무조건 입건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또 대전전산센터에서도 각종 전산 용역 관련 기밀문서가 외부로 유출된 사실을 확인, 지난 11일 센터 사무실을 추가 압수수색해 하드디스크 등 증거를 확보하고 D사가 연루됐는지 조사하고 있다.

연협뉴스

# ‘성빈여사’ 후원금 유용 감사

### 광주시 동구, 주내 경찰 수사 의뢰 방침

광주시 동구는 14일 아동보호시설인 성빈여사가 납품업체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이를 불법으로 유용했는지 여부에 대해 자체 감사 중이라고 밝혔다.

동구는 성빈여사 측이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식품 등 납품업체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다.

동구는 또 불법으로 사용한 후원금이 얼마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고 있다. 하지만, 동구는 성빈여사 측이 후원금 기부처와 후원금 지출내역 등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해 감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구는 감사가 끝나는 이번 주 안에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몰카’ 의사

### 목포 모 종합병원서... 진료실에 설치 간호사·환자 특정부위 찍어

목포경찰은 14일 자신의 진료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뒤 간호사와 환자의 특정 부위를 찍어 온 혐의(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목포 모 종합병원 의사 A(49)씨를 입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자신의 진료실 컴퓨터 모니터 부근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뒤 2차례에 걸쳐 옷을 갈아입고 있는 간

호가 모습과 상담을 받는 여성 환자의 치마 아랫부분을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인터넷에 소행 카메라를 구입, 병행에 사용했으며 환자와 간호사를 찍을 때 카메라의 위치를 바꾸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주

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을 내세워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몰카카메라 부속 등 증거를 없애려 시도한 점에 주목, 진료실과 속속 등에서 압수한 컴퓨터에 대한 분석을 거쳐 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 4일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목포=김병만기자 dss6116@

### 4대강 총인시설 공사

### 뇌물받은 감리원 검거

4대강사업 수습계산 사업인 총인처리시설 공사 과정에서 뇌물받은 감리원과 브로커가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전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서울의 총인처리시설 공사업체인 G사는 총인처리시설에 납품하는 여과기 부품의 감리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광주지역 총인처리시설 감리원 배모(47)씨에게 3000만원을 건넸다.

G사는 또 공사 브로커 최모(55)씨에게 1650만원을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G사는 광주지역 총인처리시설 공사에 부품 57억원 상당을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진=남철희기자 choul@

### 2만원 흥진 줌도둑에 수심배 벌금

### ○심야시간 비어있는 상가를 돌며 현금 2만원을 훔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벌금을 물 형편

○14일 남부경찰에 따르면 김모(33)씨는 지난 9월26일 새벽 1시50분께 광주시 남구 주월동 A왕족빌딩을 침입해 금고 안에 있던 현금 2만원을 훔친 뒤 인근 건물 근로자 대기소에 침입했다가 훔친 물건이 없어 나오던 중 바로 옆 마트 주인 한모(여·65)씨에게 발각됐다는 것.

○경찰은 김씨가 현금 2만원을 훔쳤다가 수심배가 이르는 벌금을 내게 될 처지에 놓였으며 혀를 끝글.

김영희기자 kimyh@kwangju.co.kr

##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 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1개>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강정평가액	최저매각가액	비고
2013타경 15768	1	동소 463 215㎡	전			농지취득자격증명 8,470,800원
		동소 464 365㎡	전			
		동소 465 724㎡	전			
		동소 467 681㎡ [현황:전]	대			
		동소 468 466㎡ [현황:전]	대			
2013타경 17125	1	동소 470 5 04㎡ [현황:농지]	전			농지취득자격증명 8,470,800원
		동소 471 1233㎡ [현황:전임부도로]	대			
		동소 472 678㎡ [현황:전]	대			
		동소 764 393㎡	전			
		동소 765 579㎡	전			
2013타경 10022	1	동소 422-7 1702㎡ [현황:전]	답	8,470,800원	268,141,720원	농지취득자격증명 39,672,000원
		나주시 왕곡면 신거리 434 724㎡	전	8,470,800원	268,141,720원	
		동소 9-6 2755㎡	답	39,672,000원	268,141,720원	
		동소 422-7 1702㎡ [현황:전]	답	39,672,000원	268,141,720원	
		동소 471 1233㎡ [현황:전임부도로]	대	22,977,000원	268,141,720원	
2013타경 14970	1	동소 471 1233㎡ [현황:전임부도로]	대	22,977,000원	447,316,800원	농지취득자격증명 12,562,900원
		동소 472 678㎡ [현황:전]	대			
		동소 764 393㎡	전			
		동소 765 579㎡	전			
		나주시 왕곡면 신거리 434 724㎡	전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재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특별매각조건  
 1. 납품업자 등 이해관계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매각결과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 등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될 수 있음.  
 2. 매각신청일: 2013. 10. 29. (월) 10:00  
 3. 매각신청처: 광주지방법원 집행부(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중앙로 100) 10:00~18:00  
 4. 매각방법: 경매  
 5. 매각방법: 비공개  
 6. 매각방법: 비공개  
 7. 매각방법: 비공개  
 8. 매각방법: 비공개  
 9. 매각방법: 비공개  
 10. 매각방법: 비공개  
 11. 매각방법: 비공개  
 12. 매각방법: 비공개  
 13. 매각방법: 비공개  
 14. 매각방법: 비공개  
 15. 매각방법: 비공개  
 16. 매각방법: 비공개  
 17. 매각방법: 비공개  
 18. 매각방법: 비공개  
 19. 매각방법: 비공개  
 20. 매각방법: 비공개  
 21. 매각방법: 비공개  
 22. 매각방법: 비공개  
 23. 매각방법: 비공개  
 24. 매각방법: 비공개  
 25. 매각방법: 비공개  
 26. 매각방법: 비공개  
 27. 매각방법: 비공개  
 28. 매각방법: 비공개  
 29. 매각방법: 비공개  
 30. 매각방법: 비공개  
 31. 매각방법: 비공개  
 32. 매각방법: 비공개  
 33. 매각방법: 비공개  
 34. 매각방법: 비공개  
 35. 매각방법: 비공개  
 36. 매각방법: 비공개  
 37. 매각방법: 비공개  
 38. 매각방법: 비공개  
 39. 매각방법: 비공개  
 40. 매각방법: 비공개  
 41. 매각방법: 비공개  
 42. 매각방법: 비공개  
 43. 매각방법: 비공개  
 44. 매각방법: 비공개  
 45. 매각방법: 비공개  
 46. 매각방법: 비공개  
 47. 매각방법: 비공개  
 48. 매각방법: 비공개  
 49. 매각방법: 비공개  
 50. 매각방법: 비공개  
 51. 매각방법: 비공개  
 52. 매각방법: 비공개  
 53. 매각방법: 비공개  
 54. 매각방법: 비공개  
 55. 매각방법: 비공개  
 56. 매각방법: 비공개  
 57. 매각방법: 비공개  
 58. 매각방법: 비공개  
 59. 매각방법: 비공개  
 60. 매각방법: 비공개  
 61. 매각방법: 비공개  
 62. 매각방법: 비공개  
 63. 매각방법: 비공개  
 64. 매각방법: 비공개  
 65. 매각방법: 비공개  
 66. 매각방법: 비공개  
 67. 매각방법: 비공개  
 68. 매각방법: 비공개  
 69. 매각방법: 비공개  
 70. 매각방법: 비공개  
 71. 매각방법: 비공개  
 72. 매각방법: 비공개  
 73. 매각방법: 비공개  
 74. 매각방법: 비공개  
 75. 매각방법: 비공개  
 76. 매각방법: 비공개  
 77. 매각방법: 비공개  
 78. 매각방법: 비공개  
 79. 매각방법: 비공개  
 80. 매각방법: 비공개  
 81. 매각방법: 비공개  
 82. 매각방법: 비공개  
 83. 매각방법: 비공개  
 84. 매각방법: 비공개  
 85. 매각방법: 비공개  
 86. 매각방법: 비공개  
 87. 매각방법: 비공개  
 88. 매각방법: 비공개  
 89. 매각방법: 비공개  
 90. 매각방법: 비공개  
 91. 매각방법: 비공개  
 92. 매각방법: 비공개  
 93. 매각방법: 비공개  
 94. 매각방법: 비공개  
 95. 매각방법: 비공개  
 96. 매각방법: 비공개  
 97. 매각방법: 비공개  
 98. 매각방법: 비공개  
 99. 매각방법: 비공개  
 100. 매각방법: 비공개

2013. 10. 15. **광주지방방법원 사법보좌관 권혁민**